



시작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교회 교육 기구 청년을 위한 노년의 모임 · 2006년 5월 7일 · 유타 대학교 종교교육원

친절한 소개 말씀을 해 주신 프라이스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은 휴 비 브라운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파우스트 형제님이 숨을 참을 수 있는 동안만 형제님에 대해 좋은 내용을 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주 전 바로 오늘밤에 땅에 쓰러졌었는데 이제 서서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사랑과 안부를 전합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잘 지내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힝클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밝고 건강하시고 명석하시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오늘밤 젊은 여러분들에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하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갈 쯤에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할 때가 될 것입니다. 매우 사랑스러운 젊은 자매님들과 잘생긴 형제님들이 많이 보이는데, 형제님들에게는 “눈을 크게 뜨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형제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신앙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밤 위성방송을 통해 학생 여러분과 배우자들에게 말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교 교육원 교직원들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 중에는 저와 오랜 친분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제 말씀의 주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후서 2:13)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작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중요한 교육의 과정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오늘밤은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등학교에서 대학 때까지 육상선수였습니다. 우리는 시합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위한 규정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뛰면서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식습관도 조절했습니다. 트랙 경주를 위한 준비로써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출발은 단거리 경주일 때 특히 중요했습니다. 출발대를 놓기 전에 주의 깊게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출발대를 땅에 고정시키고, 출발자세를 취한 후 감을 잡기 위해 한 두 번 몸을 세웠다 낮추었습니다. 실제로 두세 번 연습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와 좋은 출발을 하지 못하면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권고를 해주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린도전서 9:24) 물론 여기서 상이란 영생입니다.

저는 무엇을 성취하던 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하는 것이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현자는 “시작을 한 사람은 이미 반을 끝낸 사람이다”¹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변호사이자 판사였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아버지는 제게 “처음에 소송장을 제대로 만들어라. 소송장이 올바르다면 변론의 진행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는 모든 새로운 시작에 대해 감사합니다. 매 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달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매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매 순간이 더 나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훌륭한 충고를 남겼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성취할 때마다 당신은 그만큼 강해집니다. 작은 일들을 잘 해낸다면 큰 일들은 알아서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지난 몇 년 동안 재계에서는 큰 회사들의 합병이나 파산, 또는 추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우리는 끔찍한 9.11 테러와 그 여파를 겪었습니다. 홍수와 허리케인, 지진과 기타 재난이 전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의와 준비를 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든 비극적 사건에는 기회가 함께 따라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연구실이 화재로 소실되자 그는 바로 다음날부터 더 훌륭한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레스터의 한 오래된 교회 외벽에는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654년, 이 나라 곳곳에서 모든 성스러운 것들이 파괴되거나 더럽혀졌을 때 로버트 셸리 경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가 칭송 받는 것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으며 가장 비참할 때에 그러한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²

마음먹었던 목표나 선택이 가능하지 않아 때때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우리는 진로를 바꾸거나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항상 꿈꾸어 오던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추구하고 싶었던 진로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수년 동안 큰 도로포장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스팔트 포장사업에 대해 배운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고 소유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 소유의 회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우선 자본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운영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충분한 이익을 창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사업가인 삼촌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는 “지금이 바로 적기다. 더 좋은 때는 없을 거야. 내 충고는 지금 시작하라는 거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개시했고, 한정된 자본을 주의 깊게 운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첫 해부터 성공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2006년과 매해가 새로운 기회를 위한 해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저서인 두 도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최고의 시기였고, 최악의 시기이기도 했다. 지혜의 시기였고 어리석음의 시기이기도 했다. 믿음의 시대였으며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으며,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 앞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변화를 일으킬 용기

정지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에서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려깊은 철학자 브루스 바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동과 반응, 밑물과 썰물, 시도와 실수, 변화, 바로 이것이 삶의 리듬이다. 과한 자신감에서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에서 더 명료한 이해를 얻으며,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다. 그리고 희망에서 발전이 온다.”³

순응할 수 있고, 굽힐 줄 알며, 고칠 줄 알고, 향상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서 큰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자연이 날마다, 매분 변화하며 죽은 것들만이 성장을 멈추고 정지해 있다. 맑은 물은 계속해서 흐르며, 그 흐름을 막으면 정체될 것이다. 남성[이나 여성]의 삶이나 한 국가의 삶도 마찬가지이다.”⁴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

모든 인간 활동에서 영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므로 우리가 자주,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매주 취할 때 일어나야 합니다. 매주 우리에게서 진보하고 학습하고 새 친구를 사귄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훌륭한 기회입니다. 매일매일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행동으로 여섯 가지 시작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샐의 근원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 솟아나는 “생수”를 끌어올 통로를 깨끗하게 해 줄 방법들입니다.

1. 기도를 포함하여 매일 영적인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드리는 기도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이며 주님의 영이 치유하는 물처럼 흘러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과 역경,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분이 들으신다면 우리의 개인 기도는 어떠한지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깊은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힘의 근원으로서 우리 각자에게서 훌륭한 것을 기대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날마다 사심 없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믿는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행위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봉사를 가능하는 진정한 단위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친절할 봉사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언제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혼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자신에 의해 타락하기 쉽다.”⁵ 는 어느 현자의 말이 옳습니다.

3. **우리의 생활에서 더 순종하고 온전해지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노래처럼 “주 예수님을 닮으려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⁶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의로운 자들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76:69 참조) 예수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4. **주님의 신성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생에서 그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모사이아서 5:13)

5.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과 단련을 요하지만 매일 하는 경전 공부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며 더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하여 그분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듯 느껴질 때는 그만큼 내가 멀리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내가 경전에 몰두하면 그 거리는 좁혀지고 영성이 되돌아옵니다.”⁷

6. **무언가를 행하십시오.** 텔레비전으로 인해 우리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겨루는 운동 경기를 집안에서 무료로 관람합니다. 가장 훌륭한 음악은 공영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작 필만의 바이올린 연주도 들을 수 있고, 위대한 테너 파바로티가 “돌아오라 소렌토로”, “여자의

마음”, “이 여자 저 여자(Questa o quella)”와 같은 카루소의 애창곡들을 부르는 무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될 때 우리의 역할은 아주 작거나 아예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한 말처럼,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야고보서 1:22)

우리가 비판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저는 아예 시도하지도 않는 사람보다 넘어지더라도 시도해 보는 사람을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비판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강한 자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손가락질하거나, 행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비판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사람, 용감하게 노력하고 실수하고 거듭 실패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실수나 실패가 없는 노력은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위대한 열정과 헌신에 대해 아는 사람,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최상의 경우 드높은 성취라는 승리를 맛보게 되고, 최악의 경우 실패한다 해도 용감히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그가 설 자리는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담하고 겁 많은 자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다.”⁸

저는 삶의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행동을 회피하지 않으며 일생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롭게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더 풍성하고 윤택하며 훌륭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서 천재는 매우 드물며, 인생의 값진 보상은 대부분 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준비와 끈기가 총명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는 “과거는 시작의 시작에 불과하며, 현재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새벽의 여명에 불과하다.”⁹ 라는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임 순서가 시작되기 전, 한 고등평의원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고자 하는 스테이크 회장과 개인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십여 년 전 이 고등평의원은 파문이라는 징계를 받아야 할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고등평의원은 그 일에 대해 고백하지 않았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응당한 징계를 받아들일 의지가 부족했으나 그는 잘못을 수정하고 교회에서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그 사실을 고등평의원이 아닌,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 고등평의원이 참석한 일반 모임에서 스테이크 회장은 회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실제로 한 사람, 바로 그 고등평의원에겐 향한 것이었으며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회개의 절차를 시작하기를 권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등평의원을 향하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가 고백을 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을 하고 징계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시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원리의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회개는 생명을 구하는 원리입니다. 잘못된 길로 더 오래 걸어 들어갈수록 되돌아 나와 바른 길로 들어서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복음이 주는 구속의 원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사업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며 참으로 태초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3) 엘마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거룩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마 13:5 참조) 여기에는 선교 사업,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가 포함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간증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고 우리의 구주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그분께서 이 교회를 가까이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부름을 수행할 때 역사하심을 압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이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을 보았던 야렛의 형제가 더 이상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는 말처럼 그러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이더서 3:6, 19 참조)

저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베드로의 다음 말로 간증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일부가 떠나기 시작하자 상심하신 구주께서 십이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67~69) 이와 동일한 권세로 그분의 신성과 실재하심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을 통해 온 것이므로 시각을 통해 주어지는 지식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인 훌륭한 젊은이 여러분에게 사도의 축복을 드리며, 여러분의 위대한 운명을 위해 준비하고 의로움과 진리의 원리에 충실하여서 성신의 인도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성신의 권능으로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성신의 동반을 누리는 것 이상의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들어가고 나감을 지키시고 의와 진리의 길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지니고 여러분의 위대한 운명과 약속을 인지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증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남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Horace, *Epistles*, book I, epistle ii, line 40.
2. Inscription over the west door of The Church of the Holy Trinity in Staunton Harold Chapel Leicestershire, England; www.boultonbee.freereserve.co.uk/bfh/shc.htm 참조.
3. In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oughts* (1969년), 117쪽.
4. Jawaharlal Nehru, in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oughts*, 118쪽.
5. Charles Henry Parkhurst, in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oughts*, 659쪽.
6.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7. “What I Hope You Will Teach My Grandchildren” (address to seminary and institute personnel, Brigham Young University, 1966년 7월 11일, 6; 또한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년), 135쪽 참조.
8. Address at the Sorbonne, Paris, France, Apr. 23, 1910, in “Citizenship in a Republic,” chap. 21 of *The Strenuous Life*, vol. 13 of *The Works of Theodore Roosevelt* (national ed., 1926년), 510쪽.
9. *The Discovery of the Future* (1901년).